

농두지

2021 | 가을 | 45호

녹두칼럼

김원웅
광복회장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주요 뉴스

기획특집

김양식
청주대 교수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유족인터뷰

정남기
참여자 정백현의 손자

지역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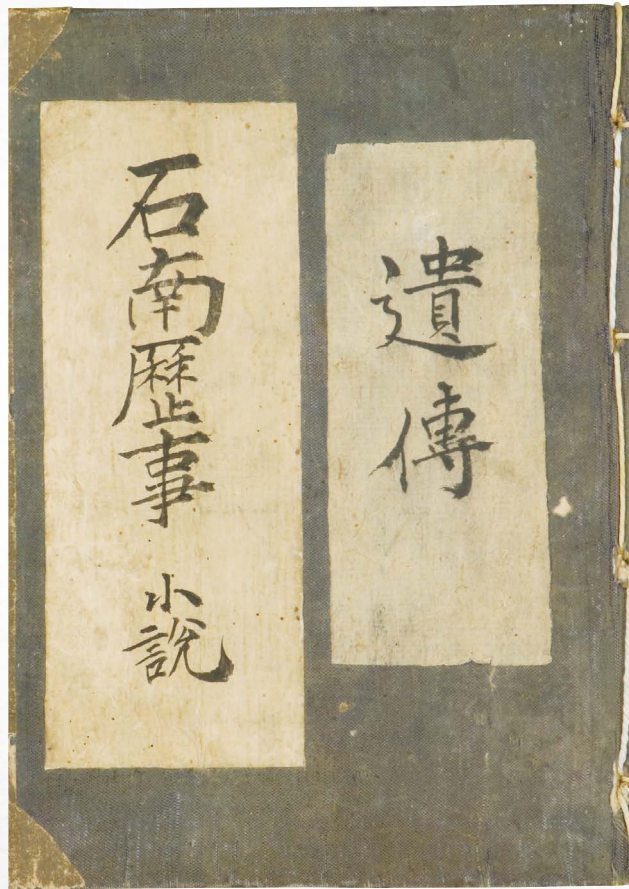
김선덕·윤여진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석남역사

石南歷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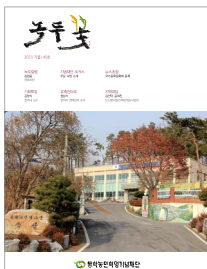


『석남역사』(石南歷事) 서적, 20.3×25cm | 1951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_박남순 기탁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고부군 궁동면 장내리 석지에 거주했던 박문규가 1951년에 쓴 자신의 회고록 「박씨정기역사」(朴氏正基歷事)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개국역년사」(朝鮮開國歷年史)를 비롯하여 각종 유람기를 엮은 총 66쪽 분량의 국한문혼용체 저술이다. 저자인 박문규는 고부군 궁동면 조소리에서 전봉준이 운영하던 서당을 다녔던 학동(學童)이었다. 이 유물에는 전봉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과 고부농민봉기와 황토현전투를 보거나 전해 들은 얘기 등이 담겨 있어史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목차

- 04 **녹두칼럼**
김원웅 / 광복회장
- 06 **뉴스초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동학농민군 편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 14 **기획특집**
김양식 / 청주대 교수
- 17 **기념재단 포커스**
[기획전시] 30만 동학농민군의 얼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 자문위원회 개최
2021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3」발간
- 26 **참여자 유족인터뷰**
정남기 / 참여자 정백현의 손자
- 37 **지역대담**
김선덕·윤여진 /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45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 49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죽산 관아 터 (現죽산면사무소)

죽산관아 터는 죽산지역 동학농민군이 1894년 9월 9일 점령했던 곳이다. 죽산관아가 있던 곳은 현재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348번지 일대로 죽산면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녹두꽃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척왜·자주국가 건설 목표, 한말 의병운동과 다르지 않아



김원웅 광복회장

올해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제정된 지 3년이 되는 해. 우리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이 정무를 보는 경복궁을 침탈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승승장구한 일본에 대항하여 1894년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거병한 동학농민군은 ‘척왜(斥倭)’를 선언하며 재봉기를 감행했다. 동학농민혁명지도부가 이 땅에서 일본을 몰아내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일임을 명료하게 인식했던 것이다.

비록 밀고와 전투력 열세로 우금치 향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은 패배하고 말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하지 않았다. 국권상실 이후 일제 강점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오롯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며, 우리 겨레가 이 땅의 주인임을 자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헌법이 전문(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 속에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만시지탄이나 국회가 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었다지만, ‘척왜’를 기치로 삼았던 전봉준, 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를 논의하는 시간이었기에, 그 열기만큼은 뜨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로부터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는 을미의병 독립유공자 서훈자가 120여명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 순국자 또한 119명에 이른다는 의미 있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외세를 물리쳐 자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취지는 양자가 다르지 않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이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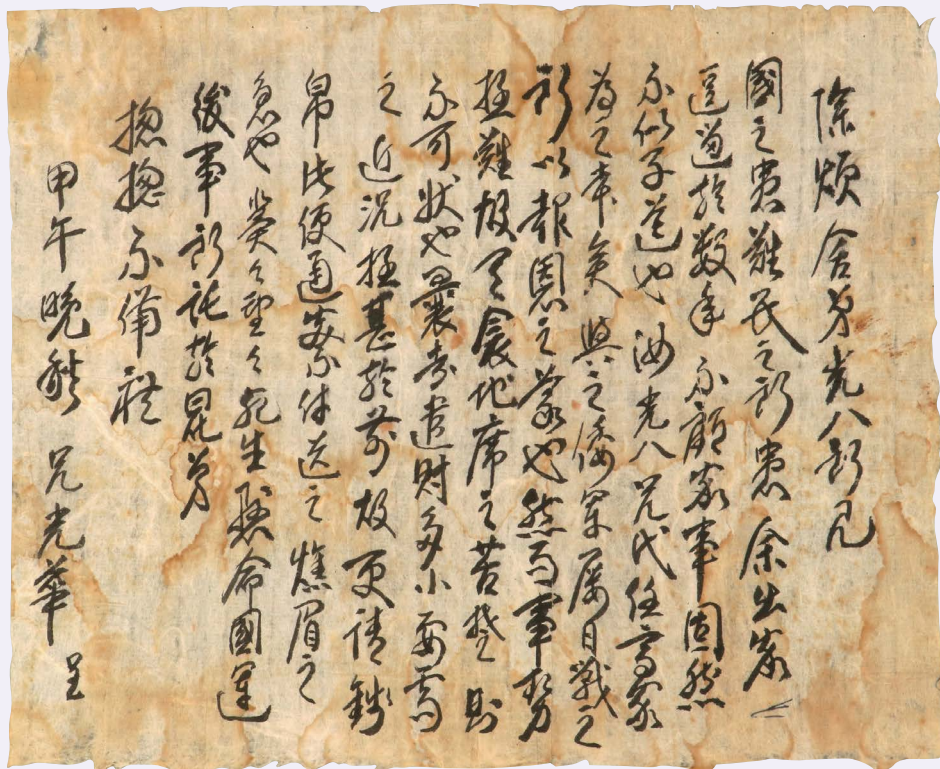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이 되는 올해, 한말 백척간두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민초들의 처절한 투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역사학자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고등학교 8종 한국사 교과서들 역시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국권수호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주무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김원웅 | 14대·16대·17대 국회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장 역임, 일제잔재청산 의원모임 대표 역임, 단재 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역임,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대표 역임, (사)조선의열단기업사업회 회장 역임, 2019년 6월 제21대 광복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동학농민군 편지 —

소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순덕 기증)



동학농민군 편지(유광화 편지)

지난 5월 6일 문화재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동학농민군 편지」(유광화 편지)를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문화재 등록예고(문화재청공고, 제2021-191호, 문화재청장)를 거쳐 지난 7월 1일 최종적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811호로 등록하였다.

■ 원문 탈초(脫草)

際煩舍弟光八卽見

國之患難民之所患 余出家逗遛於數年不顧家事 固然不似子道也 汝光八兄代任齊家爲之幸矣
與之倭軍屢日戰之 所以報恩之冢也 然而事勢極難 故天衾地席之苦楚則不可狀也 囊者遣財多
少要需之 近況極甚於前 故更請錢帛此便 通察付送之 焦[焦]眉之急也 冀冀望望 死生縣命 國
運後事則託於昆弟 摠摠[恩恩]不備禮

甲午 晚秋 兄 光華 呈

※ 탈초 : 초서로 된 원문을 읽기 쉬운 필체로 바꿈

■ 번역문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에 갚고자 함이라네.

그러나 사세가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이불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전에 보내 준 얼마간의 재물은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돈을

이 인편에 보내주길 청하니 다시 살펴 보내주게. 아주 급하네.

바라고 또 바라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네.

나라의 운명과 뒷일은 맏동생에게 부탁하겠네.

몹시 바빠 예를 갖추지 못했네.

갑오년 늦가을 형 광화 보냄

「동학농민군 편지」는 전라도 나주 출신 유광화(劉光華, 1858~1894)가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면서 고향의 동생 유광팔(劉光八)에게 보낸 한자(14행 132자)로 쓴 가로 29cm, 세로 24cm 크기의 한문(漢文) 편지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백성은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죽고 사는 것 또한 나라의 운명과 같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던 유광화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사물자 조달의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유광화는 1894년 9월(음력)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 때 전봉준 부대에 합류하지 않고, 손화중·최경선 등과 함께 광주지역에 남아 남해안으로 침입할 수도 있는 일본군을 대비하면서 서울로 진격하는 주력부대에 군수물자를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광화가 동생에게 군수물자 지원을 부탁한 이 편지는 갑오년(1894) 11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유광화는 전라도 화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37세의 일기로 전사(戰死)하였다.

이 편지는 양반 가문의 자제(子弟)인 유광화가 동학농민혁명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필요한 군자금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의 원본이라는 점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농민은 물론이고 양반과 지식인 등이 다함께 벌인 범민족적인 반일의병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 등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고(故) 유길홍(劉吉洪)이 살아생전에 조부인 유광화(劉光華)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하여 역사학자 이상식(前 전남대 인문대학장) 교수에게 알렸고, 이상식 교수가 무등일보(1995년 6월 3일)에 편지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유길홍이 사망하고 그의 처 김순덕이 이 편지를 소장·관리해오다가 2019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기획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이 계기가 되어 이 편지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식 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등 50개 단체가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형태로 출범한 서훈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박용규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



▣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즉각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

갑오의병(1894년 8월)과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이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이고 뿌리다. 갑오의병 이후 을미의병(1895)도 항일무장투쟁이어서 훌륭한데, 동시에 2차 동학농민혁명도 항일무장투쟁이어서 훌륭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병 참여자에게 1962년부터 지금까지 2,682명을 줄기차게 서훈하여 왔다.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똑같은 항일무장투쟁인데, 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만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하느냐?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형평성과 공정성에 너무도 반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50개 참여단체에 소속한 우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서울지방보훈청, 세종시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광주시지방보훈청, 남해읍 사거리 등)에서 최시형, 전봉준 등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전개하였다.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에 맞서가며 전국에서 릴레이 피켓시위에 무려 420명이 참여하여 서훈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동시에 전국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유족회 분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 등 전국에서 총 119개 서훈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그러함에도 국가보훈처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50개 참여단체에 소속한 우리는 일제와 싸운 최시형,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가 출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동학농민혁명 제 단체 전국연석회의를 지난 8월 13일 충남 온양에 있는 천도교 아산교구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전국연합단체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를 조직하였고, 향후 날을 정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기로 의결하였다. 드디어 우리는 9월 10일 오늘 국민 여러분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에 50개 참여단체에 소속한 우리는 오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선언문을 발표한 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법률적·학문적 정당성과 타당성은 이미 확보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하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참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데서 시작한다.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무시하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 보훈처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4, 약칭 : 독립유공자법)의 내용(제4조 (적용 대상자))에도 해당한다. 즉 독립유공자법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순국선열”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고 밝히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을미의병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도 “순국선열”이다. 독립유공자법에 “순국선열”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순국선열”인 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에 대해 왜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지 않는가?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해야 한다는 학술회의가 올해 3차례나 개최되었다. 2021년 5월 6일 5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학술토론회, 2021년 5월 20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한국역사연구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하여 개최된 《동학농민전쟁의 민족운동사적 성격 검토》 학술대회, 7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여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3차례 학술회의에서 역사학자들은 전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라고 주장하였다.

2021년 5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을 발의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8월 5일에는 동학농민혁명 전공역사학자(대학교수)의 서훈 촉구 성명서가 나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와 그 산하에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전봉준 등의 서훈에 적극적이지 않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구조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11명, 최종심)가 있다.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1분과(11명, 의병, 3·1운동), 2분과(11명, 국내항일), 3분과(11명, 해외항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제1공적심사위원회 1분과(의병분과)에서 우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의병에 대해 지금까지 2,682명을 줄기차게 서훈하여 왔다. 그러나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서훈에는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고, 서훈에 동의하지 않았다. 2019년에 상정된 전봉준·최시형 서훈 건도 1분과(의병분과)에서 반대했다.

현재 1분과의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항일 동학농민군을 압살한 사람을 독립유공자 서훈에 찬성 결정한 당사자들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전라도 나주의 정석진·김창균, 충청도 홍주의 홍건·안창식·안병찬·이세영, 충청도의 문석봉, 경기도의 심상희, 강원도의 이영찬·박동의 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준 의병전공 심사위원들이 1분과를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들이 있는 한 전봉준 등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선열들이 서훈을 받기는 요원하다.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준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에 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이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고, 일본군과 싸운 진짜 항일 동학농민군은 지금까지 미서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적심사위원회에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들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서 무슨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심사를 다룰 수가 있는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즉각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는 보훈처 산하에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한다.”(8월 12일 보훈처 민원회신 답변)고 상투적으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현재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심사를 다루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제1공적심사위원회 1분과(의병분과)가 서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은 불공정하게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의병분과(1분과)에서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의병참여자를 심사해서 서훈을 하였듯이,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서 동학농민혁명 전공 심사위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심사해서 서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분과 하나를 더 만들면 된다.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국가보훈처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1분과(의병분과) 심사위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게 즉각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주장

하나.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라!

하나. 1962년에 7인 위원회를 만들어, 을미의병을 독립유공 서훈대상에 넣었다. 독립보훈의 책임자인 보훈처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대상에 넣어라. 보훈처장은 ‘동학농민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전봉준 장군 등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은 일급 코메디다. 전봉준 등 진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 동학농민혁명예회복법을 무시한 황기철 보훈처장은 각성하라.

하나. 어둠이 햇빛을 이길 수는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순국과 헌신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이다.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순국선열을 기리지 않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하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구성

- **상임대표** :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고려대 사학과 박사).
- **공동대표(9명)** : 김영진(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희수(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백선거(동학 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장명진(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회장), 전성준(사단법인 전봉준 공동대표), 정용주(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인경(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단장)
- **집행위원장** : 정해곤(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 **집행위원(8명)** : 가명현(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문영식(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최고원(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함경숙(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전 사무국장), 허채봉(부산인권포럼 생명평화위원장), 황의대(동학실천시민행동 대표)
- **자문위원** : 김양식(청주대), 서해성(작가), 성주현(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정갑선(천도교종의원 의장)
- **참여단체(50개)** :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동학실천시민행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광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제동학농민혁명유족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해동학실천시민행동,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당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기념관(전주), 동학농민전쟁우금티사업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완주시유족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농민혁명전주시유족회,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태안군유족회, 동학농민혁명 항일의사 광주유족회, 동학문화해설사, 동학역사문화선양회,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산동학실천시민행동, 부산인권포럼,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아산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우금티전적알림터, 원평장터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태안지회, (사)전봉준,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동학농민혁명유족회, 하동고성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한강하구중립수역배따우기,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서로 존중하는 사회, 동학농민혁명에 길을 묻다

김양식 청주대학교 교수

1.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인간 존엄성 문제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난 20세기 역사가 남긴 여러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폭발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교차되면서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한 모순과 진통은 최근 경험한 ‘촛불’과 ‘태극기’에서 상징적으로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 내부에 축적된 여러 사회적 모순과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른바 갑질, 내로남불, 학폭, 성폭력, 편 가르기 등이다.

실제 우리 사회는 헌법 1조에서 명시한 ‘인간 존엄성’의 선언적 의미와는 달리 ‘서로 존엄한 사회’에서 멀어져 있다. 이는 숭고한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여 생명 경시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실제 최근 잇따른 고위인사의 자살이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은 인간 존엄성과 생명가치를 경시하는 우리 사회에 경고음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 근현대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서로 존엄한 사회에서 멀어진 것은 한 순간의 산물이 아니라 지난 19~20세기의 장기지속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1945년 해방으로 일본 식민지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되었지만, 사회구조는 여전히 연속선상에 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식민지 트라우마가 아직도 기성세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뿌리는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바로 조선사회가 주체적으로 근대사회로 전환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이어진 것이 결정적이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부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찾아야 한다.

2. 다시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다

1860년에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19세기 조선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나, 동학의 역사적 구현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사회혁명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수직적인 불평등사회를 전복하여 수평적인 평등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보국안민에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국안민의 주체가 일반 백성, 즉, 민중인 점이다. 이것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부각된 것으로, 중세의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며 즉자적인 민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대자적인 근대의 민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알리는 것으로, 부자유와 억압으로부터의 인간 존엄성의 선언이기도 하다.

실제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 직후 발표한 4대 강령에서 첫 번째 강령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또 동학농민군 12개조 기율(紀律)을 보면, ‘행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병자에게는 약을 주라’ 등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도덕성과 자기규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사상을 역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혁명을 통해 혁파하고자 한 것은 비인간적인 신분제였다.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보면, 12개조 중 4개가 신분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제5조 노비문서는 소각한다’, ‘제6조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한다’ 등과 같은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평등한 제도를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치열한 역사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 공간과 실천적 노력은 일본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하였고, 그 실패는 식민지로 나가는 서막이 되었다. 식민지는 기본적으로 폭력과 차별을 기반으로 한 체제였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폭력과 차별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심하였고, 그래서 1919년 3·1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저항의 강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았다.

3·1운동은 동학의 맥을 잇는 천도교가 주도하였다. 왜 다른 세력이 아닌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하였을까? 그 사상적 기저에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상이 뒷받침되었다. 3·1운동 당시 민중들이 외친 ‘독립’은 단지 나라의 독립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부자유와 불평등으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족적인 시각에서만 3·1운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회복하려는 목소리와 몸짓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3·1운동은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은 천도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로 표현되는 문명개화론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일으켰으나, 이는 동학이 역사적 헤게모니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3·1운동 이후 천도교는 신·구파로 갈리어 대립하였다. 주도권을 장악한 신파는 민족계조론과 자치론으로 기울어 동학의 기맥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동학의 전통과 기운은 왜소화되어간 반면, 사회진화론과 문명개화론에 편승한 이성 중심의 인간관이 식민지 지배수단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열등감, 자기부정, 패배의식 등에 잠식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독재체제를 재생산하는 문화 도구로 활용되어 식민지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존엄한 사회를 위하여

지난날 우리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통해 인간,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조선시대의 신분의식이 사라진 곳에는 식민지 트라우마가 새롭게 자리 잡았다.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청산과 단절 못지않게 지난 역사를 '직시'하여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를 대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에 대한 해석이다. 이들 혁명적인 두 사건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목소리를 소환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 지구 온난화와 생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대에 필요한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움직임은 희망적이다. 현재 한국 청년들의 세계관은 기성세대와 다르다. 기성세대가 식민지 트라우마와 독재시대에 길들여진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청년세대는 20세기 한국의 집단 무의식에서 자유롭다. 그들은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세대일 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삶에 익숙하다. 특히 그들은 개인의 주체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여러 팬덤문화에 적극적이다. 그러면서도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희망은 신바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고조선 이래 매우 영적인 민족이었고 동학도 그런 전통 위에 있었다. 오늘날에도 서로 존엄한 사회를 지향하는 영적인 전통은 단절되지 않은 채 한국인의 문화유적자 밈(meme)에 살아 있어, 그것이 때를 만나면神明(神明)으로 이어지고 신바람 나는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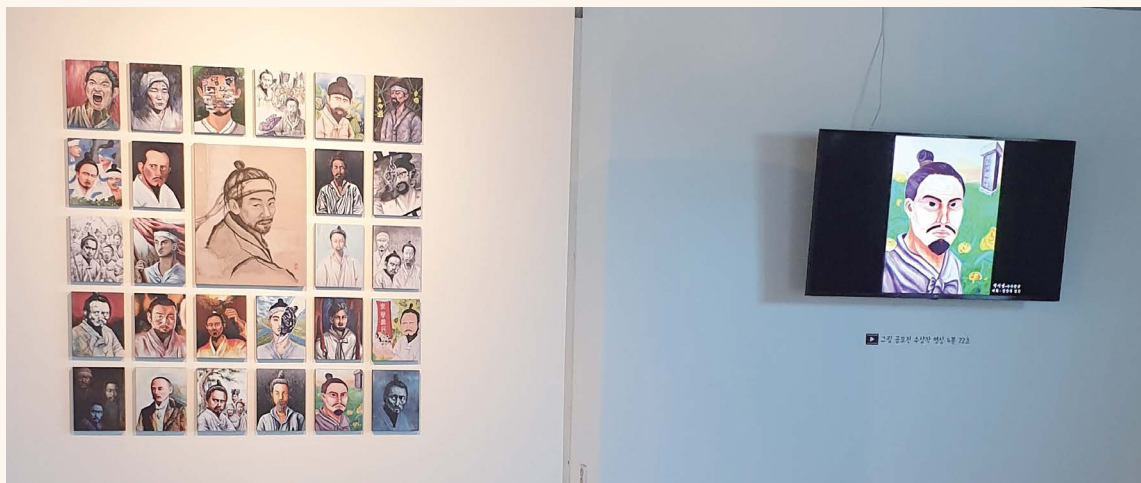
신바람 나는 세상은 늘 공감이 있고 해방된 세상이었으며 긍정적인 마음과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러한 신바람은 최근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K-팝, 뮤지컬, 영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신바람이 불고 있는 한국사회는 서로 존엄한 사회를 열어갈 가능성이 아직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바람은 역사 속에서 사람다움을 지향해 왔기에 서로 존엄하는 인간사회를 만들어가는 추동력으로 작용하리라 믿는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30만 동학농민군의 얼굴



■ 전시장 입구

지난 6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에서 2021년도 제1차 기획전시가 개막되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시될 이번 기획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참여한 농민군의 얼굴을 주제로 삼았다.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만민평등세상을 추구하였으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결연히 맞섰던 동학농민군은 근대적인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지난 한 세기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채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왔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역적' 혹은 '반란군'으로, 그 후손들은 '역적의 자손'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채 숨죽이며 살아야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이 불태워졌으며, 얼굴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도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 인물인 전봉준 장군이 체포된 후 당시 서울에 소재했던 일본영사관 순사청으로 압송된 후 재판받으러 오가는 과정에서 일본인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진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일본군이 자행한 학살을 가까스로 피해 1900년대 초, 중반기까지 살았던 참여자 몇 분의 사진을 어렵게 구하였다. 이런 사정은 사진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한몫했다. 따라서 이번 기획전은 이름도, 얼굴도 남김없이 스러져간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고자 '동학농민군 얼굴'이라는 주제의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전시장 입구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사진들(일부 게재)



▣ 전봉준, 1895년 2월 27일 무라카미 텐신(村上天真) 촬영



유태홍
1867~1950



이병춘
1864~1933



김영원
1851~1919



김홍섭
1874~1965



송학운
1846~1939



정태영
1859~1922

■ 그림 공모전 / 동학농민군 얼굴

공모전은 4월 12일부터 6월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동학농민군의 얼굴'이나 '널리 알려진 동학농민군의 얼굴(모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의 작품을 공모하였다. 총 4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2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0만
동학농민군의
얼굴

주제
내가 생각하는 동학농민군의 얼굴,
널리알려진 동학농민군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대상
고등학교, 대학생 및 일반인

규격
2980×720mm~5080(2980×3000)mm에서
중게 구성(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방법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25 시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지름, 액자 등 활용

시상
상당시 1위, 2등, 3등, 작품 설명
장자 1매 이내, 작품에 대한 전단지 1장

시상내역

대 상	2등	1등
최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합 계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대행처 및 일반부

대 상	1등	2등
최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합 계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알림사항

- 수상작은 2021년도 6월 개최 예정인 기획전에 전시됨
- 수상작은 기념관에서 소장되며, 기념관 홈페이지, 출판물 및 인터넷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미수상작은 원고와 종로로 발송된 후 1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됨. 반환 요구 시 30일 이내에 직접 가져가기 외에 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작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50848(대전광역시 서구) 동학로 100
기념관전화 043-236 5554
홈페이지 www.donghak.or.kr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최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0만
동학농민군의
얼굴

주제
내가 생각하는 동학농민군의 얼굴,
널리알려진 동학농민군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대상
고등학교, 대학생 및 일반인

규격
2980×720mm~5080(2980×3000)mm에서
중게 구성(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방법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25 시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지름, 액자 등 활용

시상
상당시 1위, 2등, 3등, 작품 설명
장자 1매 이내, 작품에 대한 전단지 1장

시상내역

대 상	2등	1등
최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합 계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대행처 및 일반부

대 상	1등	2등
최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우수상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합 계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10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군 연구회)

알림사항

- 수상작은 2021년도 6월 개최 예정인 기획전에 전시됨
- 수상작은 기념관에서 소장되며, 기념관 홈페이지, 출판물 및 인터넷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미수상작은 원고와 종로로 발송된 후 1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됨. 반환 요구 시 30일 이내에 직접 가져가기 외에 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작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50848(대전광역시 서구) 동학로 100
기념관전화 043-236 5554
홈페이지 www.donghak.or.kr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 공모전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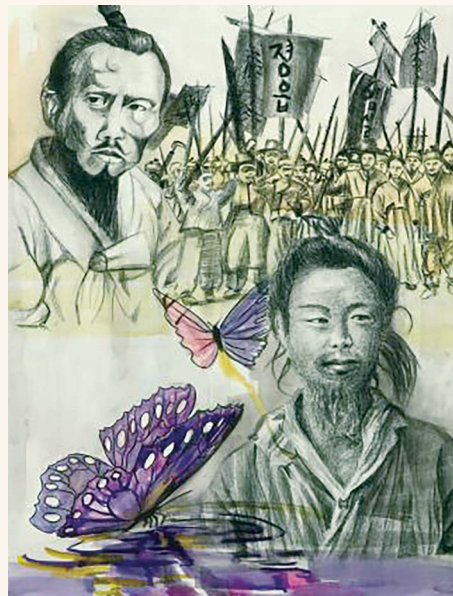
■ 작품 전시

〈고등부 수상 작품〉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얼굴

안현정(고등학생부 대상)
30F, 종이에 수채



나비의 꿈

한승희(고등학생부 대상)
30F, 종이에 연필, 물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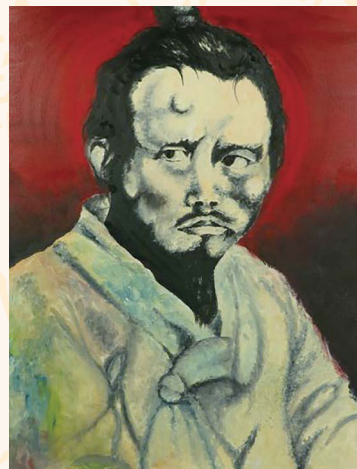
전봉준

임혜원(고등학생부 최우수상)
30F, 종이에 아크릴



파랑새

강성은(고등학생부 최우수상)
30F, 캔버스에 유채



증명사진

장해빈(고등학생부 최우수상)
30F, 캔버스에 유채

〈대학·일반부 수상 작품〉



존재했었던, 존재하는, 존재할
박단비(대학·일반부 대상)
30F, 캔버스에 아크릴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이병진(대학·일반부 최우수상)
30F, 캔버스에 아크릴



사생결단
박인희(대학·일반부 우수상)
30F, 장지에 먹

〈수상자 방문 및 기념사진 촬영〉



임혜원(상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장해빈(전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 자문위원회 개최



지난 7월 20일 동학농민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기념공원 내 새롭게 들어설 전시관 구성을 위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기념공원은 청소년 교육체험을 위한 캠핑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연수동과 전시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관, 전국적이고 전민족적인 반일의병항쟁을 상징하는 울림의 기둥 등으로 조성된다.

올해 말 완공예정인 기념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시관, 추모관, 외부조형물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근·현대사 분야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동언(前독립기념관 연구소 연구위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대표 정해곤(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처장), 전시기획·연출 분야 박재상(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사)·정상기(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 디자인 분야 최성호(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영상·미디어 분야 인재홍(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고주원(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문하였다.

202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개최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



▣ 대회사 |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축사 |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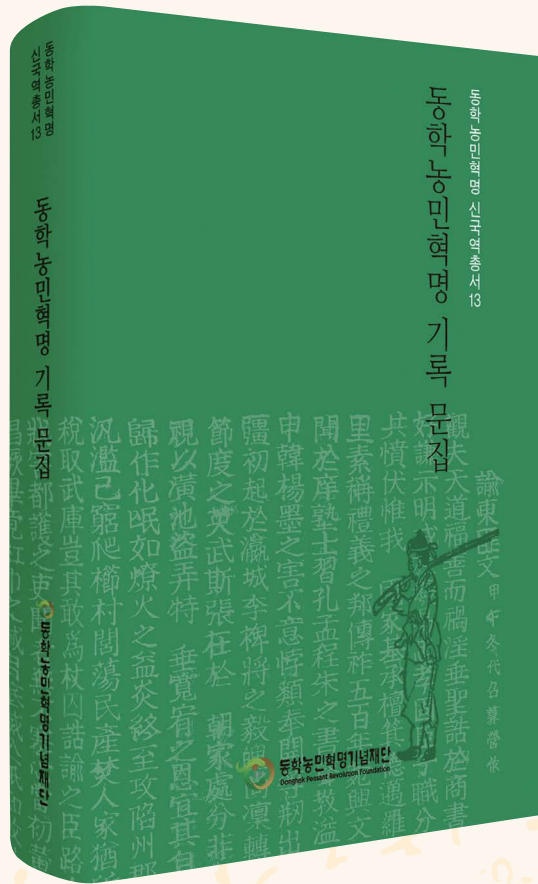


▣ 종합토론

지난 7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이라는 주제 아래 202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채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대회사,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의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의 「청일전쟁과 일본의 조선정책: '보호국'구상과 그 실현」, 배향섭(성균관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반일항쟁적 성격」, 김양식(청주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방안」, 유바다(고려대 교수)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에 대한 검토」 등이 발표되었으며, 신순철(원광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방광석(홍익대 교수), 김항기(독립기념관 연구위원), 허수(서울대 교수), 한철호(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3』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8월 31일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3』을 발행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활성화와 역사인식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자료를 우리말로 번역한 이번 총서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경험한 관료, 유림(儒林), 향촌의 지식인들이 작성한 편지를 비롯하여 시(詩), 상소문(上疏文), 효유문(曉諭文) 등 17종 46건이 수록되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향촌의 지식인과 지역공동체가 동학농민군 활동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수록, 영인본으로 발행된 총서는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www.donghak.or.kr)>에 등재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백현의 손자 정남기

일 시 2021. 8. 25.(수) 13시

장 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계간, 통권 45호) 2021년 가을호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남기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이렇게 만나 뵈니 또 다른 느낌입니다.(웃음) 녹두꽃 독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고문님 자기소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남기 반갑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남기입니다. 1993년 하반기에 구성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쳐 1994년 3월에 창립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사무총장과 회장직을 10년 넘게 장기 집권했었지요.(웃음) 제 나름대로는 40여 년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우리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이듬해인 1995년 서울에서 출범하여 활동했던 ‘동학농민군 서훈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해에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경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념사업단체와 함께 설립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맡아 활동했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감사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인으로서 2005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고창 중·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문병학 네, 제가 1992년 6월 5일 창립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사무처 직원으로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봉환사업,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국가기념일 제정 등의 실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벌써 고문님과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사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크게 변해왔는데, 유족의 한 사람으로 이점에 대해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이자 반일의병전쟁이었는데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일본인 사학자와 그에 빌붙어먹은 식민사학자 등에 의해 동학이라는 사교집단의 난(亂)이라거나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따른 지역적인 반란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은 '반란군'으로, 그 후손들은 '반란군의 자손'으로 매도당해왔습니다. 친일파나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참 무지막지한 세월이 지난 20세기였다고 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병학 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들의 모임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혁명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꼭 100년 만인 1994년 창립되게 되는데, 창립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던 고문님께서 사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남기 지난 시절을 어찌 말로 다하겠습니까? 어쨌거나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성장하면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면서 유족회 창립도 가능했지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도 크게 바뀌었는데, 이 대목에서 고(故) 이이화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작년 봄에 돌아가신 이이화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아립니다. 이이화 선생님은 우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의 산파(産婆) 역할을 하신 분이예요. 1986년도에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였잖아요? 서울 중구 필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 연구소에서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989)'를 발족한 후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을 찾아다니셨지요. 그때 역사문제연구소의 젊은 학자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민주화교수협의회 근현대사를 전공하신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이 애를 많이 쓰셨지요. 우리 유족회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예요. 지금은 고인이 된 우윤 선생을 비롯하여 신순철, 신영우, 배항섭, 김양식, 왕현중, 김선경, 박준성 등등 참 많은 분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바로세우고자 강단과 유적지 등을 답사하면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에 크게 기여하였지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1993년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쳐 1994년 3월 3일 서울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19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임수경 두 국회의원이 참석했었지요.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의 감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기 가슴이 벅차기도 했고, 너무 늦게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한 것 같아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랬지요. 창립대회 때 임종석 국회의원과 임수경 국회의원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었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유족회 고(故) 김재훈 선생이 참석하라고 연락해서 두 국회의원이 참석했었어요. 김재훈 선생 아들이 김세진 열사잖아요.

문병학 네, 저도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김세진 열사를 잘 알지요. 전대협이 창립되기 한 해 전인 1986년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이었던 김세진 열사가 1986년 4월에 대학생 전방입소 반대투쟁을 하면서 ‘반전반핵, 양키고함을 외치고 분신하였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초에 사망했었어요. 김재훈 선생님 살아계실 때 만나면 제가 늘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정남기 우리 유족회 김재훈 선생이 김세진 열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런 연고로 1980년대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유족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응해주었어요. 유족회 창립대회 임종석과 임수경 두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던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유족회 일부가 빨갱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냐고 낯을 붉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몇 우리 유족회 회원들에게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빨갱이 운운이나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동학농민군의 후예라면 응당 사회변혁에 적극적인 것이 맞지 그 반대인 것이 맞느냐? 무슨, 여기가 보수 민보군 유족회냐!” 라고 소리쳐서 상황을 제지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간 그런 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유족회 창립대회는 아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지요. 창립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이화 선생님과 제가 눈을 마주쳤는데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언뜻 붉어졌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어쨌거나 유족회가 창립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반란사건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이 부서지고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로, 일제의 침략에 맞선 반일구국의병전쟁으로 재인식된 것이 큰 힘이 되었지요. 사실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던 때까지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은 ‘반란사건’이나 ‘전라도사건’에 머물러 있었던 측면이 강했어요. 100주년 기념사업이 이러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을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 힘이 10년 뒤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을 견인해 냈고, 마침내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이라면 혁명 100주년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십시일반으로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했던 동학농민혁명 전공연구자나 기념사업 단체의 임원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마움을 표하는 뜻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전국의 기념사업단체들을 떠올려보면, 서울의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염무웅), 전북 전주의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조광환), 경남의 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범수), 경북의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강효일), 충남의 공주우금티동학농민전쟁기념사업회(회장 진영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문영식), 충북의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박운수),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전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정현) 등등이 생각납니다.

문병학 고문님께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 이전부터 활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의 목적인 조부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유족회 창립과 기념사업 일반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본래 목적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웃음) 조부님이신 정 백자 현자 참여자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셨는지요?



정남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 알았습니다. 지금은 책 제목과 저자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동학혁명 전봉준』인가? 그 책을 읽고 알았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함자가 나오더라구요. 그 책을 읽고 난 후 아버지께 왜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냐고 여쭙봤지만 그때도 아버지께서는 묵묵부답이셨어요. 그냥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손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후에 대학을 다니느라 서울로 올라와서 고창군 해리면 출신인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어른을 뵈게 되었어요. 그분께 저의 할아버지에 대해 여쭙봤는데, 그분 말씀이 당신 전공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하시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198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이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이이화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한겨레신문에 게재할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이이화 선생님과 가까워지고 다른 참여자 유족과도 교류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1993년 서울 중구 필동에 있던 역사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모임이 유족회 준비위원회인 셈이었지요. 그 때 모였던 분들이 전북 부안의 김영태, 경북 예천의 전장홍, 윤영식, 전북 정읍의 김환옥, 서울의 김재훈, 함기영, 경기도의 임영섭 등이었어요. 그 모임을 이후 곧바로 전북 정읍의 손주갑 선생이 합류했어요. 이때부터 손주갑 선생이 총무를 맡아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일을 이란 곳은일은 도맡아했지요. 그렇게 해서 100주년이던 1994년 3월에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대회를 갖게 되었어요. 창립대회 때 초대 회장으로 김영중 선생님을 모셨어요. 김개남 대접주 아래에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경상도 진주와 하동, 전라도 광양과 순천 등지를 호령했던 영호대접주 김인배 장군의 후손이지요. 저는 그때 아직 나이도 젊고 해서 사무총장을 맡았고, 손주갑 선생이 총무를 맡았어요. 그 무렵만 해도 유족회 내부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그중 대표적인 논란의 하나를 든다면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을 빼고 ‘동학혁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민을 빼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었어요. 제 생각은 갑오년의 역사에서 ‘농민’을 빼버리는 것은 핵심을 빼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농민’을 빼면 안 된다는 쪽이었어요. 19세기 중엽 문명사적 전환이 요청되던 때 창도된 사상적 측면 또는 종교적 측면에서 동학사상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갑오년에 있었던 변혁지향의 농민항쟁을 사상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으로 국한시키면 제한성이 너무 많이 뒤따른다는 게 지금도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지금의 개념으로 바뀌어 생각하면 계급으로서의 농민이라기보다는 계급적 성격을 벗어난 국민이라는 개념에 가깝다.)이 중심이 되어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는 가치를 들고 일어나 낡은 봉건제도 개혁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지향했던 사회변혁투쟁이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국권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반일의병전쟁인데, 그 주체인 농민을 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논란은 결국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의 명칭과 국가기념일 명칭이 ‘동학농민혁명’으로 확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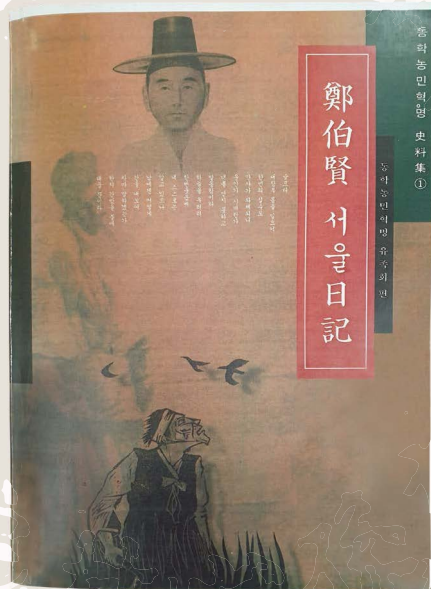
문병학 네, 또 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일반의 얘기로 돌아가는 듯합니다.(웃음) 다시 조부님에 관한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 때 송희옥과 함께 전봉준의 비서(祕書)로 글을 짓는 일을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부님께서 문장이 아주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정남기 조부님께서 무장현 예전리 상평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당을 다니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인근 신대리에 천안전씨 집성촌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분들과 친교가 있었다고 해요. 존함이 정 만자 원자를 쓰셨던 제 증조부님께서 신대리 쪽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찍이 무장의 손화중 포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자 제 조부이신 정 백자 현자 이분도 자연스럽게 신대리 천안전씨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해 듣기로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썼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서 무장현 일대에서는 글 잘 쓰기로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때 비밀스러운 글, 요즘 말로 성명서 그런 것을 쓰는 역할을 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병학 조부님께서 태어나신 집, 그러니까 생가(生家)가 공음면 예전리이지요? 그곳에 몇 년 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백현의 생가>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는데, 고창군에서 세운 것인가요?



■ 정백현 초상화



■ 정백현 서울일기

정남기 그 집이 조부님께서 태어난 집이 맞아요. 복원한 게 아니라 그때의 집 그대로인데,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살림이 곤궁하여 제 선친께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조부님 생가(生家)라고 불리는 표지판이 세워진 것은 몇 해 전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호 선생이 “친일했던 김성수나 서정주 등과 관련된 집은 정비하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 참여자 생가에는 표지판 하나 세워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고창군청에 요구하여 세워졌다고 합니다.

문병학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몸을 피해 서울로 올라가셨지요? 서울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다시 고향 무장으로 내려오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 조부님께서 서울에서 거주하시면서 남긴 유고(遺稿)를 국역하여 『정백현의 서울일기』라는 책자로 발행하셨지요?

정남기 조부님께서 남긴 글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이화 선생님께서 제 아버님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100주년을 기해서 한자로 되어있던 원고를 고창군 아산면에 살고 계시던 아버님 친구분께 번역을 부탁해서 책으로 엮어 출판했습니다. 번역한 원고의 내용 중에는 눈물 없이는 읽기 힘든 부분들이 많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글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부님께서 26살 때 전봉준 장군을 만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에게 패배한 후 서울로 피신해서 사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52세 때 돌아가셨지요. 서울에서는 3년 내지는 4년 정도 사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사시다가 그러니까 1898년이나 1899년이었겠지요? 그때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여의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선대원군 쪽 사람이 무장현감으로 부임해 내려올 때 동행하여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장에 내려오신 후 20여 년을 은둔자처럼 조용히 살다가 돌아가셨지요. 조부님께서 낙향하신 후 제 아버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님께서는 4남 2녀를 두셨는데, 동학농민혁명 전에 3남 2녀를 낳고, 서울로 피신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제 아버지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전쟁 때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버지는 태어나지 못했을 테고, 나도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곤 했지요.

문병학 이번에 소식지를 기획하면서 2010년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발행해온 『녹두꽃』 포맷별 게재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것이 <유족인터뷰> 코너에 유족회 초창기부터 애써오셨던 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문님을 비롯하여 김영중 선생님, 이현도 선생님, 김재훈 선생님, 김성환 선생님, 손주갑 선생님 등등.... 그래서 이번 호에 고문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정남기 재단에서 발행한 소식지가 집으로 오면 다른 책들과는 달리 아주 정독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유족이라서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기념재단 창립 때부터 녹두꽃을 주욱 받아보면서 왜 나는 유족인터뷰를 하지 않지? 뭐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간 참여자, 그리고 그분의 후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부님은 기



록도 있고 하니, 나중에 해도 상관없이 없고,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남긴 참여자보다는 그렇지 못한 참여자와 그 유족들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제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누구누구의 조부, 증조부 혹은 고조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재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유족회 모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자기 조상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자 유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왔어요. 사실, 저는 정 백자 현자 참여자분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족회 회원 대부분이 참여자의 증손(曾孫)이나 고손(高孫)이에요. 제주 4.3항쟁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족은 부모 또는 자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 동학농민혁명 유족은 조금 달리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이런 제 생각을 곡해하는 유족회 분들도 더러 있어요. “명예회복? 종이쪼가리 하나 달랑 주는 게 그게 명예회복이냐? 껌데기뿐인 명예회복으로 유족들의 눈을 가리고 생색내면서 정작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일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더러 들어왔습니다. 그건 정말 맥락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 그냥 대응하지 않았어요.

문병학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전후의 맥락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저도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다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 섭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듯 매사에 단계가 있지요. 물론 아주 드물게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혁명적인 변화도 사실은 나름의 바탕이 마련된 후 가능한 것이지요.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 사회 도처에 군사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도 ‘반란사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1980년대로 들어선 후 민족 민주운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군사정권이 종식되면서 사회변혁이 진전되기에 이르렀고, 그 흐름이 100주년 기념사업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어쨌거나 1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에 2004년 특별법과 2019년 2019년 국가기념일 제정이 가능했고,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정남기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전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사람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에 뿌려진 씨앗 없이 싹이 틀리 만무하고, 싹이 우거질 리 만무하다. 어느 날 느닷없이 열매가 맺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역사가 아니던가?

라고요. 문부장도 기억하겠지만 1995년에 ‘동학농민군서훈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유족들과 기념사업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벌여서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냈었지요. 돈이 적어 한 차례 내기로 했는데, 한겨레신문사에서 두 차례나 더 광고를 내주었잖아요?

문병학 네, 기억합니다. 1995년, 100주년 기념사업이 끝난 후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으려던 때 동학농민군서훈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저도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었는데, 서울 인사동 어느 한식집에서 모였었지요. 그날 이이화 선생님, 한승헌 변호사님, 김중배 선생님 등을 비롯



해서 유족회에서는 선생님을 비롯하여 몇 해 전 돌아가신 김재훈 선생님, 김성황 선생님, 손주갑 선생님 등등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지요.

정남기 그 자리에서 언론계 선배이신 김중배 선생님을 서훈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셨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지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서훈을 요구하는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었지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동학농민군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라는 요구는 힘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우선 억울하게 들쭉거리진 반란군이라는 명예를 벗겨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물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지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지요. 그래서 2000년 연초부터 국회의원 연구모임 결성을 논의하여 9월엔가 모임이 출범하게 되었지요. 이후 국회에서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추진하면서 명예회복 특별법을 준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국회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3월에 특별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지요. 누가 뭐라 해도 특별법이 제정되었기에 2019년 국가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구요.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 예우하라는 요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맥락과 흐름을 모르는 유족회 몇몇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명예회복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것이지요.

문병학 네, 특별법과 기념일이 제정되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란든지, 현행 교과서의 명칭을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도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운동 앞에 동학농민혁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잖습니까?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명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는 점 등등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문님께서도 일찍부터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정남기 그랬지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내내 우리 유족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기념사업단체들과 전공 연구자, 천도교 관계자 등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라고 국가보훈처에 강력하게 청원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 8월 중순 국가보훈처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었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을 분은 녹두 전봉준 장군과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라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저는 2020

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1894년 갑오년 때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어섰던 동학농민군보다도 못하다 생각합니다. 동학농민군들은 일제강점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식민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집요하게 강제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떨쳐내고, 서둘러서 갑오년의 정신으로, 동학농민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병학 네, 고문님. 좋은 말씀 밤새워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웃음) 또 다음 기회에 좋은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2021. 7. 28(수) 11시

장 소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무실



문병학 이번 호 『녹두꽃』 <지역대담>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선덕 회장님, 그리고 윤여진 부회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 분들에게 두 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선덕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선덕입니다. 저는 논산에서 태어나 논산에서 성장한 논산토박이입니다. 논산에서 살면서 1993년에 논산 농민회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농민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여진 안녕하세요.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여진입니다. 1988년부터 논산 등지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사단법인 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이후, 충남민예총)을 창립할 때 멤버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 충남민예총 논산지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문병학 2021년 7월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34개입니다. 올해 들어 충남 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창립한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서른두 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창립할 때까지 여러 어려움들도 많았을 텐데 그간의 경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덕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지난 1994년 전후로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전개되었겠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저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논산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해나갈 단체를 창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를 창립한다는 것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어서 지난해에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창립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논산과 관련성이 아주 깊으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 등으로 이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사건으로, 전라도사건으로 줄곧 왜곡되고 축소되어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전라도 정읍이나 충청도 공주 이렇게들 생각해왔잖아요? 그래서 논산과 동학농민혁명을 연결시켜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다. 그 점이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단체 창립이 많이 늦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여진 맞습니다. 논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알려진 것이 동학농민군 남접과 북접이 공주로 진격하기 이전에 연합한 곳이다, 뭐 이런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논산지역의 주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창립된 기념사업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분위기가 많이 고양되긴 했지만 우리 논산에서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병학 네, 두 분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된 곳은 대체로 큰 전투가 있었다든가 하는 지역들입니다. 논산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많지만, 지난 100년 동안 특정



■ 김선덕 회장

지역의 민란으로 치부되면서 우리 기억에서 멀어져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김선덕 네, 부장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반일의병전쟁으로서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미가 거세 된 채 100년의 세월을 지나오다보니 논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그 위상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조금 높아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이 제정되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 논산에서도 단체 창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기념일 제정이 단체 창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병학 네, 지역에서 기념사업 단체를 창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선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여기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지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 단체가 총 34개인데, 그 창립연도를 통해서도 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34개 단체 중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립된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끝난 후 한동안 단체 창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여 개 단체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후 5개의 단체가 창립되었지요.

윤여진 네, 확실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높아져야 지역에서 움직임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논산 지역에서도 이전부터 단체 창립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있어왔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정부주최로 기념식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리고,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여론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논산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그러니까 논산농민회, 논산교직원노동조합, 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 논산지부를 비롯하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들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힘을 모아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창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덕 논산에는 이전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 중 논산시 연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만북이네공부방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전부터 ‘동학농민혁명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논산농민회에서도 동학농민혁명사를 공부하고, 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11월 논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윤여진 선생님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창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논의가 진전되어 마침내 2020년 9월 6일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직후인 작년 11월 7일에는 ‘제1회 논산시민 평화대동 한마당’ 행사를 기획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전시회와 함께 1894년 남집과 북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던 역사적인 장소 ‘소토산’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를 ‘그리운 소토산 해방구’라는 문화예술 작품으로 제작하여 공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문병학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논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나가실 텐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지요?

윤여진 저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리고 충남민예총 논산



☐ 윤여진 부회장

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에서 논산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에서 논산지역에 깃든 제반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서 그 맥을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논산은 삼국시대 때, 그러니까 고구려·신라·백제 시절에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한 나·당연합군에 맞서 대항했던 역사적 사실 등도 감안해서 지역에 흐르는 역사적 맥락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논산은 잘 알려진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겠습니까?

문병학

네, 제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팀을 인솔해서 논산을 지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서울을 오르내릴 때 논산 부근을 지나면서 “논산은 참 한이 깊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침과 질곡이 많은 우리나라 어딘들 한이 서리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만 방금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 논산도 그 한이 다른 곳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황산벌전투는 물론이고, 후백제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쫓겨나 고령로 귀화했다가 나중에 수십 만 대군을 이끌고 자기가 세운 후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려오다가 이곳 논산벌에서 크게 싸웠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견훤의 아들 신검이 패배하여 후백제가 멸망하잖아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논산(연산)의 개태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견훤의 무덤도 지금 논산 육군신병훈련소 근처에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수 세기(世紀)를 훌쩍 뛰어넘어 1894년 갑오년 때 논산벌, 정확하게 말하면 논산과 부여의 위쪽이 공주 이인과 우금티 등지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가 큰 전투를 벌였지만 동학농민군이 패배하고 말았지요. 나아가, 논산에는 지금 민족분단의 한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신병훈련소가 있는 곳이라서....

윤여진

네, 부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논산의 역사에 대해 부장님 얘기를 듣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남긴 숙제, 이를 테면 외세(外勢) 문제는 현재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지요.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때 우리 논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연합부대를 형성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 필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중에서 농민군의 사기가 가장 드높았던 시기가 남·북쪽 농민군이 논산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소토산, 그곳에서 출정할 때 농민군의 사기는 말 그대로 충천(衝天)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을 그 사기도 끝내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우금티에서 패배한 후 다시 논산 황화대에서 재기를 도모했으나 이때에도 응전(應戰)다운 응전도 못해보고 패배하여 깊은 한을 남긴

곳이 우리 논산지역입니다. 또, 우금티와 황화대에서 패배한 농민군 잔여세력이 논산을 지나 진산과 금산을 거쳐 현재 전북 완주군에 속한 대둔산 형제바위로 숨어들어 1895년 2월까지 처절하게 항전했지 않습니까? 그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 바로 우리 지역 논산입니다.



문병학 네, 부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지역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를테면 역사적 사실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때로는 스스로를 좁은 틀에 가두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이 지닌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을 깊이 살펴서 기념사업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덕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작년에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창립 무렵의 얘기를 부연한다면, 당초 창립일자를 6월 25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9월 들어서야 창립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7월 12일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9월로 접어들 후 창립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립한 날로부터 1주일 후인 9월 13일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용암(龍庵) 김낙철(金洛喆) 대접주님 묘소를 참배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낙철 대접주님의 손자 김영웅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님도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김낙철 대접주님은 갑오년 당시 전라도 부안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지요. 이분은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후 고향을 떠



나 서울, 천안 등지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당초에 그분 묘소가 당초 서울 이태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51년 경 이장(移葬) 하여 현재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산 37-10에 모셔져 있습니다.

문병학 네, 김낙철 대접주님 묘소 외에도 논산 지역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많이 있지요? 명재(윤증) 고택이라든가 황화대전투지 등등.... 논산 지역 유적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덕 네, 논산지역 유적지로는 먼저 노성관아를 들 수 있고, 동학 다류소설 『은월이』에 나오는 연산현감 이야기로 유명한 연산관아와 염정골(지금의 금산군), 남·북접 농민군이 연합부대를 형성했던 소토산 등이 있습니다. 또, 동학농민군이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한 후 후퇴하던 중에 재기를 위해 진지를 구축했던 황화산성, 현재 은진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은진관아, 노성산성 등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논산지역 유적지로 명재(윤증)고택과 황화대전투지만 소개되고 있는데 수정·보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학 네 회장님, 지금 저희 재단에서 전국의 유적지와 기념시설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에 논산지역의 유적지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갑오년 당시 남·북접 농민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했던 장소가 '소토산(小土山 혹은 高峰, 圓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었나요?

윤여진 논산시 소재 신흔여자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대훈 선

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부터 소토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일본공사관 기록 등으로 소토산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주한일본공사관 기록에 소토산에서 서남쪽으로 1,200미터 떨어진 곳에 황화대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 이냐면 황화대는 확실하고 소토산은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한 황화대를 중심으로 반경 1,200미터 떨어진 곳의 산을 찾은 것입니다. 논산은 산이 많지 않고 들이 넓은 곳이라서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았습니. 황화대로부터 1,200미터 거리의 산이 다름 아닌 샌쁠여고와 대림아파트(옛 대건중·고등학교 자리) 뒤쪽 산, 관음사라는 절이 있었던 산입니다. 그 산에서 예전에 백골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곳을 백골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토산 그러니까 그냥 작은 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894년 당시 소토산에 집결한 남·북점 농민군 숫자가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될 것이라 합니다. 2만 명이 장막을 치고 허기와 추위를 달래며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는 것을 보면 결코 작은 산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에도 황화대에서 1,200미터 거리에 있는 샌쁠여고와 대림아파트 뒤쪽 산이 소토산인 게 분명합니다.

문병학

네. 장편소설 '녹두장군'을 쓰신 송기숙 선생님께서 1980년대 중반부터 소토산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결국 못 찾았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논산계승사업회에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덕

무엇보다도 남·북점 농민군이 연합한 장소인 소토산 유적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지만 소토산 일대를 '소토산 논산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초까지 대건중·고등학교가 있었던 곳이 현재 대림아파트 자리입니다. 대건중·고등학교를 옮길 때 그 곳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더 산자락을 깎아내서 대림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토산이 상당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논산계승사업회에서는 논산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더 이상 소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우고, 이곳을 잘 보존해서 장차 평화공원으로 정비하여 논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념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학

뭐든 일단 시작하게 되면 다 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습니까? 두 분의 열정이면 소토산에 꼭 평화공원이 건립될 것 같습니다.(웃음) 바쁘신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녹두꽃, 다시 피다

■전북 교육청 지원 답사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연대하여 매년 중·고교생 대상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 여름철에도 전국의 27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하였다.

전북 완주군 고산고등학교(2021.06.07.)



전북 전주시 전라중학교(2021.06.16.)



전북 부안군 백산초등학교(2021.06.18.)



전북 아버지학교(2021.06.19.)



전북 고창군 고창북중학교(2021.06.25.)



전북 전주시 우석고등학교(2021.07.09.)



전북 전주시 덕일중학교(2021.07.23.)



전북 고창군 고창고등학교(2021.07.24.)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2015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과 연계, 연례사업으로 전국의 역사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21년 올해 교원직무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 규모를 대폭 축소(전국 역사교사 30명)하여 8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가 역사특강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세계사적 의미’(문병학,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꿈’(김양식,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 ‘남원 동학·동학농민혁명의 특성과 김개남’(한병옥, 남원정신연구회 회장), ‘국제관계 속에서 보는 동학농민전쟁’(강효숙, 원광대학교 강사)을 진행하였고, 둘째 날에는 황토현전적(사적295호)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비롯하여 고창군의 선운사 마애석불, 정읍시의 만석보유지비, 조규순영세불망비, 전봉준고택, 전봉준 단소, 사발통문 작성지 등 유적지를 답사를 진행하였다.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2021.08.28.~08.29.)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6월 14일	뉴스핍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고창군민 성금 2억원 돌파
6월 17일	경향신문	동학농민군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6월 22일	전남일보	노성태의 남도역사 이야기)동학농민군 운명 갈랐던 전투지, 나주 서성문
6월 24일	한국농정	'동학'향한 순정, 전시로 꽃 피다
6월 24일	KBS NEWS	윤준병,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6월 30일	위키트리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 동학농민혁명 동상 건립 기부금 모금 시작
7월 1일	뉴스스	'동학농민군 편지',제주 이시돌 목장 테시폰식 주택'문화재 됐다
7월 4일	새전북신문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유관
7월 5일	위키트리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역사 기행 탐방길 함께 걸어요!!"
7월 6일	NEWS1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작할 조각가 예비후보 5명 선정
7월 12일	NEWS1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기부금 이어져
7월 12일	지이코노미	김두관, '동학농민혁명 성지' 황도현 전적 구민사 방문
7월 13일	위키트리	고창군농민회,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성금 1천만원 쾌척
7월 15일	전민일보	정읍시 이평면 이장협의회,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모금 동참
7월 18일	전북도민일보	새야 새야 파랑새야 활용해 고창 동학혁명 알려야
7월 18일	동양일보	동양칼럼/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7월 19일	Breaknews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들은 서훈 촉구 성명서 발표해야
7월 19일	중도일보	"논산은 역사의 성지(聖地),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 시키자"
7월 21일	전북일보	[신간]동학 소년과 녹두꽃
7월 22일	NEWS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해야"
7월 23일	오마이뉴스	4대 걸친 동학 유물 600여점 기증·기탁... '문영식'가 전국 유일
7월 25일	동양일보	동학농민혁명 유족 문영식씨, 태안군에 유물 226점 기증
8월 2일	전북도민일보	훈불기념사업회, 전주교·동학농민혁명 주제 문학기행 마쳐
8월 3일	연합뉴스	소설 '동학 소년과 녹두꽃' 쓴 호주동포 작가 "항거정신 담았다"
8월 4일	오마이뉴스	전봉준 장군은 왜 독립유공자가 아닐까
8월 5일	쿠키뉴스	"늦었지만 이제라도"동학농민혁명 서훈에 팔 걷은 역사학자들
8월 5일	세종의소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운동'들불처럼 번지다
8월 6일	Breaknews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들 동학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서훈촉구 성명서 발표
8월 16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구입
8월 18일	새전북신문	'최시형, 전봉준 등 2차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촉구 국민연대'구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제 단체 전국연석회의 개최
8월 21일	국제뉴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조사 착수
8월 24일	전라일보	정읍 내장상동 대표자회 동학혁명 동상 건립기금 기탁
8월 30일	새전북신문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
8월 31일	연합뉴스	'친일작가 제작'전봉준 장군 동상 대신 '동학군 행렬'형상화
8월 31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선 지식인이 본 동학 기록 문집'발간
9월 2일	연합뉴스	"동학혁명 선양사업에 써달라"...아버지 유언에 상속토지 기부
9월 2일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전남서 개최해야" 조례안 통과
9월 7일	위키트리	동학농민혁명 동상 건립 위한 기부금 모금 이어져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기증(기탁임)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수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연락처 : 063-538-289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

①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포함)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②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7)으로 문의하거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 학 농 민 혁 명 기 념 재 단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감도